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2006) 392-408

성호사설(星湖僿說)에 나타난 지리관 일고찰*

— 천지문(天地門)을 중심으로 —

손 용 택**

A View of Geography in 'Sunghosaseol'*

Yong-taek Sohn**

요약 : 본 연구는 성호의 대표적 저서인 '성호사설'의 천지문(天地門)을 대상으로 여기에 나타난 지리관을 도출하기 위해 지리관련 주제와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한 것이다. 전공 지리학자의 저술이 아닌 만큼, 주제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구조적이거나 심오하다고는 볼 수 없다. 백두산-태백산-두류산의 맥을 따라 흐르는 기(氣)가 영남 지역의 풍속과 인물배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는 서술은 풍수지리사상에 매몰된 듯한 인상을 준다. 방어기능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입지설명도 지적할 만하다. 그러나 기후요소, 수리(水利), 지도(地圖)작법 등의 설명, 유래와 정보가 정확한 지명(地名) 명명의 필요성 주장, 제주도와 울릉도 및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지지적 기술 등은 지리내용과 주제(topics)들의 훌륭한 포착이다. 생활에 필요한 지리적 내용들을 분석적,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실용적인 시각에서 이들 지리관련 정보들을 유용한 지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묵시적 권고, 기저에 짙게 깔려있는 향토와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 등은 매우 높이 살만하다.

주요어 : 성호사설(星湖僿說), 천지문(天地門), 풍수 지리적 사고, 전략적 방어입지, 실용적 지리지식, 지리관

Abstract : This paper was written on the purpose of examining and analyzing Sungho's view of geography in 'Cheonjimun(天地門)', a part of 'Sunghosaseol(星湖僿說)'. Sungho is not a geographer who specialized in geography. His view is neither structural in methodological approach nor profound in geographical thought. Unfortunately, he looks to be possessed by geomantic thought(風水地理思想) in explaining geographical features and native customs. And he focused and emphasized only on defensive function in place location.

As a whole, however, he had a good grasp of and analyzed about geographical topics which are related to human life and we must take interest in. Therefore, in his view, there is a love for country and hometown. Especially, it has to be highly appreciated that he tried to explain his view in analy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with an unspoken advice which things necessary for human life have to be used to available knowledge.

Key Words : Sunghosaseol, Cheonjimun, geomantic thought, perception of cultural & historical geography, a view of geography

1. 서 론

성호의 학문의 결정(結晶)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설'(僿說)은 그가 40세 전후부터 40년간 걸쳐서 설경(說經)하는 여가에 생각이 미친 바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 쌓이고 쌓인 것을 팔순에 가까웠을 때 그의 족자(族子)가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사설'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리관련 내용은 천지문(天地門)에서 집중적으로 보인다.[1]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도 성호사설 가운데 지리관련 주제 및 내용이 가장 많이 게재된 천지문에 국한하여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성호 이익에 대한 타 전공분야 학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학 쪽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리학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선 이즈음에 성호사설 등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고전들을 활발히 분석하고 거기서 지리학적인 내용 또는 관련 사실들을 찾아내어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서양에서 싹트고 체계화된 지리학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전에서 보이는 지리관련 내용이나 주제들이 현대지리학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덜 구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인정되지만 우리 선조들의 삶 속

* 본 연구는 200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개인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sohn@aks.ac.kr)

에는 시기마다 상황 마다 당시에 응용 활용된 지리지식과 정보들이 있었고, 이들 지식과 정보는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오늘날의 체계화된 지리지식의 바탕이 될 만한 것이었는지는 모르나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삶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상호작용하며 경험에서 얻어진 지리지식과 지혜가 누적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의 고전들을 연구하는 전공 분야는 많다. 국문학, 민속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은 물론이고 미술사학, 국악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다.[2] 지리학은 어떠한가? 문화역사지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면의 연구 성과를 착실히 내고 있음은 퍽 다행한 일이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할일이 많다.

현대 지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지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 분야의 모태 학회인 대한지리학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과거 반세기 이상 동안 우리나라의 지리학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지리학 인구가 적은 척박한 환경에서 외국의 선진 지리학 내용을 받아들인 신학문으로서 뜸 들기도 전에 지난 20세기 말에 서울에서 세계 지리학대회를 개최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리학계에서는 외국의 새로운 지리학 이론들을 적용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연구내용의 다양성과 범위 확대는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과거의 우리 것을 돌아보고 정립하는 지리학과, 미래를 투시하고 준비하는 미래 지리학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전자(前者)에 일맥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고전 속에 깃들어 있는 선학과 선조들의 지리관련 사고(思考)와 철학, 지혜를 통해 과거의 우리 현주소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 누적되고 성과를 나타낼 때, 국학으로서의 지리학은 확고해 질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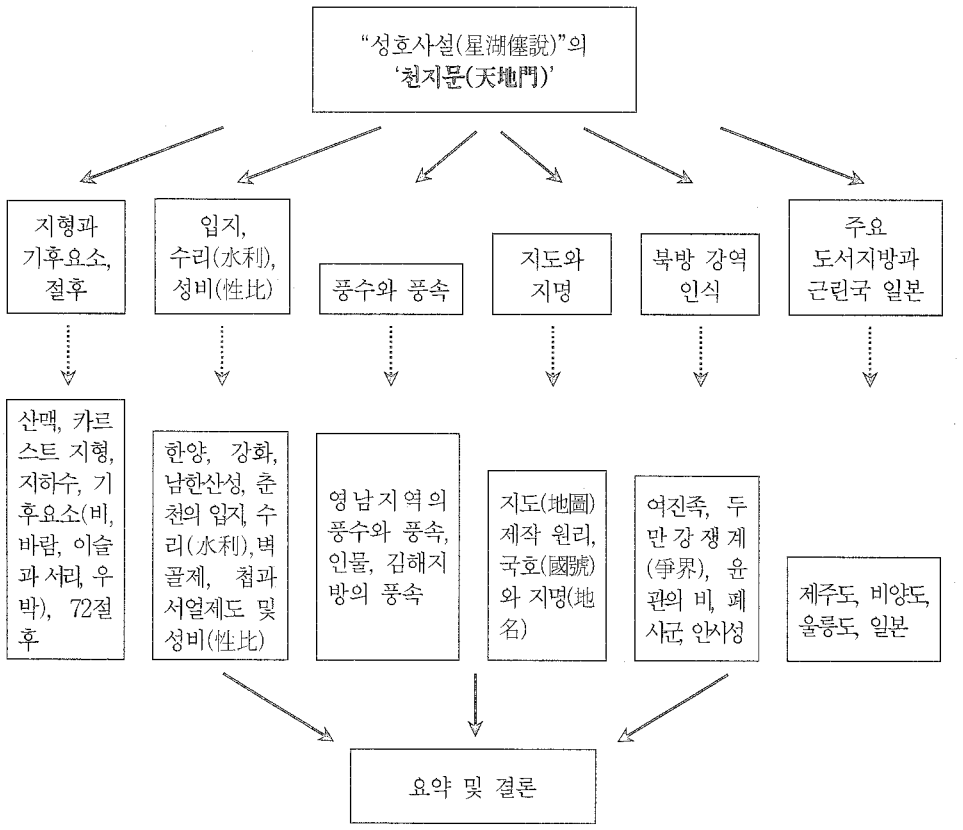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설계

이고 고전분야 연구의 타학문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위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보람과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다음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성호사설 천지문의 많은 주제와 내용들 가운데, 이익(李瀷)의 지리적 관심은 어느 주제들에 두어지고 있는가를 살핀다, 둘째, 지리관련 주제(topics)들에 따른 내용깊이는 어디까지 이르는가. 셋째, 성호사설 천지문에서 왜 이러한 지리관련 주제와 내용들이 다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고 해석한다. 이러한 성찰은 시대상황이 필요로 했던 지리지식의 범주와 깊이를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성호사설 천지문에 보이는 주제와 내용들은 오늘날의 그것에 비추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이상의 연구내용 결과를 종합하여 성호사설 천지문에 나타난 지리관을 도출하고 정리하여 서술 한다.

그렇다면, 논문의 제목과 연구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지리관'이란 무엇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지리관'이란 성호사설 천지문을 통해 본 성호 이익의 "지리적 사고(思考)"이다. "지리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연구내용에서 짚은 것처럼, 지리학 또는 지리지식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topics)를, 어느 정도의 내용 깊이까지 다루었으며, 왜 당시에 그 주제를, 그 정도 깊이까지 다루었는가 이다. 이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로서 오늘날의 체계화된 지리지식과의 차이점 등을 들어내어 비교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다. 그리고 지리관련 주제를 골라내는 것과 발췌된 관련내용들에 대한 해석과 논의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의 주체는 연구자이므로 주제를 골라내고, 내용의 깊이를 재며, 오늘날의 지리내용과의 차이를 들어내어 해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최소한의 연구자 '주관'이 깃들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연구방법은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익(李瀷)의 저술 문헌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이다. 둘째, 이익의 대표저작인 『星湖僿說』의 천지문(天地門)을 연구범위로 좁혔다. 이는 천지문에 지리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3] 셋째, 성호사설의 천지문 권(天地門券)을 꼼꼼이 읽으면서 지리관련 주제(topics)와 내용을 모두 발췌하였다. 넷째, 추출한 지리관련 주제와 중복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그림 1처럼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분류의 기준은 현대 지리학의 분류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섯째, 이렇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 주제와 내용들을 논의·해석한다. 여섯째, 발췌한 내용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필요한 경우 한문 원본과의 대조작업을 벌이고, 의심되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의 분석관점을 기준으로 성찰하고, 정리 요약하여 '성호사설 천지문에 나타난 지리관' 즉, 지리적 사고(思考)를 도출한다.

2.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삶과 시대배경

성호는 1681년 아버지 하진과 그의 후부인 권씨(權氏) 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682년 6월에 전 부인 이씨(李氏)와의 사이에 태어난 3남 2녀와 후부인 권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2남 2녀를 남긴 채 55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죽었다.[4]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외롭고 병약한 삶이 시작되었다. 10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을 만큼 병약했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잠(潛)에게 글을 배웠다.

25세 되던 1705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에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해 9월에 둘째 형 잠(潛)은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십수 차례의 형신(刑訊) 끝에 47세로 옥사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익은 과거에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가 가까운 고향 근처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 그의 호가 이에서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그의 전장(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여기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등을 바탕으로 평생을 두문불출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5]

그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그의 외아들 맹휴(孟休)는 「예론설경」(禮論說經), 「춘관지」(春官志), 「접왜고」(接倭考) 등을 남겼고, 종자(從子) 병휴(秉休)는 예학으로, 종손 중환

(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가환(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가 천주교 박해의 신유사옥 때 옥사했다.[6]

그는 이이(李珥)와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해서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 실학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사장(司章), 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 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굳어진 신분관·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임란과 호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변동과 당시의 세계관·역사의식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국가에 대한 재인식과 자각에서 일어난 조선후기 실학의 기본성격도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가(佛家)의 이단(異端), 술가(術家)의 소기(小技) 및 패관잡설(稗官雜說) 등 세 가지 부류의 서(書)를 혐오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 역산(曆算), 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읽고 만국전도(萬國全圖), 시원경(視遠鏡), 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종래 지녔던 중국의 화이관(華夷觀), 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 해 주었다.[7]

3. 지형과 기후요소

성호는 천지문을 통해 천문학, 기상학, 지리학, 기후학 등의 분야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인의 생각을 펼쳤다.[8] 그러나 본 장(章)에서는 이들 내용 중에서 지형과 기후요소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리적인 주제들과 내용에 한해 논하기로 한다.

1) 산맥과 카르스트 지형, 지하수와 샘

성호는 백두산과 이로부터 시작되어 동해안을 따라 뻗어 내린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산지 지형의 흐름을 논하고 생기(生氣)가 이를 따라 흐르는 풍수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祖宗)이다. 철령(鐵嶺)에서부터 서쪽으로 뻗은 여러 산맥이 모두 서남쪽으로 줄달음쳤다. 철령에서 태백산과 소백산에 이르러서 하늘에 닿도록 높이 솟았는데, 이것이 본 줄기이고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갈래는 모두 서쪽으로 갈려 갔으니, 이것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버들가지'(楊柳枝)라는 것이다. …(하략)…. (민족문화추진회, 1978, 90)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할 때가 있어서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풍수지리"이지만, 성호와 같은 옛 선학들과 일반인들에게는 이러한 '풍수' 또는 '풍수지리 사상'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관심사였음을 성호사설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퇴계 선생이 태백산과 소백산 밑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유학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퇴계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깊이가 있고 빛을 발한다. 그리고 예의가 있고 겸손하며 문학이 찬란하여 수사(洙泗)[9]의 유풍을 방불케 하였고, 또한 남명(南冥) 같은 인물이 지리산 밑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기개와 절조로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인물인데, 그 후계자들은 정신이 강하고 실천에 용감하며 정의를 사랑하고 옳은 일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어 뜻을 굽히지 아니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이들 인물들이 범상치 않음은 곧, 백두산-철령-태백산맥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정기를 타고 태어난 인물과 그 문하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한편, 백두산 산지 지형에 대해 「여지승람」(輿地勝覽)과 홍세태(洪世泰)의 「유하집」(柳下集)에 있는 백두산기(白頭山記)의 내용을 인용하여 살피면서 백두산의 지리적 특징, 발원하는 하천, 윤관(尹瓘)의 정계비 등에 대해 두루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나아가 윤관(尹瓘)의 비가 서있는 속평강(速平江)까지 우리 영토로 하지 못하고 김종서(金宗瑞) 때에 와서 후퇴하여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한 것은 크게 잘못 된 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성호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도 그 기이한 형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물론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전혀 몰랐을 것이며, 성호가 보거나 듣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석회동굴인 모르고 서술하였을 것이다. 본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희귀한 석굴 즉, '석회동굴'의 분

포지역과 그 동굴 내부의 일반적 특징을 잘 기술하고 있다.

> "석굴로 기이하게 생긴 것은 상원(祥原)의 가수굴(佳殊窟), 울진(蔚珍)의 성류굴(聖留窟), 영원(寧遠)의 석룡굴(石龍窟)이 가장 저명하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옥천(沃川)에서 사냥꾼이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는데, 짐승이 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까스로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가 본즉, 아래로 내려가다가는 다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는 다시 내려가기를 두어 마장쯤 가서 안이 활짝 넓어졌는데, 환하게 트이어 각종 물체 모양이 없는 것이 없었으며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끝이 없었다 한다. 보성(寶城) 오봉산(五峰山) 밑에도 굴이 있는데, 절의 승려 여덟 명이 약속하고 함께 관솔불을 켜 들고 새끼로 길을 표시하면서 들어가다가 속이 너무 깊어서 무서워 더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으나 깃발, 칼, 창, 전투용 배 등 없는 물건이 없었다 한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93).

석회동굴 내부에 발달한 각종 카르스트 지형의 일군(一群)을 스펠레오뎀이라고 할 때, 인용문의 내용은 카르스트 지형의 특징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묘사라고 여겨진다.

성호는 지하수의 한 갈래가 지표로 솟아 나오는 형태인 '샘'(spring)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하였다. 샘이 무작정 흘러넘치지 않는 원리를 구부러진 대나무 통에 물을 넣어 실험을 하는 원리를 들어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로서 우물의 샘이 아무리 풍부해도 일정한 수위까지만 채우고 더 이상 넘쳐나지 않게 된다는 명쾌한 설명은 성호의 과학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 준다. 샘의 과학적 원리를 밝혀줌으로써 일상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우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는 부분이다.

2) 기후 요소

(1) 비와 바람

비가 만들어져 내리는 원인을 추위(冷)와 더위(熱)가 서로 충돌하여 생기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기후학에서 말하는 온난기단과 한랭기단이 만나 이루어지는, 즉 기단(氣團)에 의한 전선(前線)성 강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원리는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냉'(冷)과 '열'(熱)이 만나 비가 만들어져 내리는 원리는 확대해 본다면, 대류(對流)성 강우, 지형(地形)성 강우 등의 현상에도 일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태양의 직사광선에 의해 데워진 '공기 열의 대류 현상'과 산맥 등으로 인한 지형이 가로막혀 이를 타고 넘는 공기의 단열 압축과 팽창의 원리가 더해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들 원리를 치밀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강우의 원리를 축약하여 '추위(冷)'와 '더위(熱)'가 만나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차이점이다.[10] 용어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랭기단(추위)과 온난기단(더위)이 부딪혀 생성되는 전선성 강우의 기본원리를 알고 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호의 설명은 강우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파악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설명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구름가운데의 음이온과 양이온이 부딪칠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 역시 과학적이다.

한편 성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바람이 불던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불렀던 바람의 명칭이 달랐음을 일일이 들어 설명하였다. 고유의 우리 바람 이름을 소상히 밝혀 설명하고 있음은 성호의 자연현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리적 관심을 반영한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속담 가운데 "마파람에 게눈 감추는 듯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麻)'바람은 곧 남풍임을 알 수 있다.[11]

> 나는 농어촌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속담을 많이 들어 알고 있다. 비가 오고 바람 불 것을 미리 점치는데 바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 동풍을 사(沙)라 하는데 곧 명서풍(明庶風)으로 「이아」(爾雅)의 곡풍(谷風)이라는 것이요, 동북풍을 고사(高沙)라 하니 곧 조풍(條風)이요, 남풍을 마(痲)라 하니 곧 경풍(景風)으로 「이아」에 개풍(凱風)이라는 것이요, 동남풍을 긴마(緊痲)라 하니 곧 경명풍(景明風)이요, 서풍을 한의(寒意)라 하니 곧 합창풍(闔閶風)으로 「이아」에 태풍(泰風)이라는 것이요, 서남풍을 완한의(緩寒意) 또는 완마(緩痲)라고도 하니 곧 양풍(涼風)이요, 서북풍을 긴한의(緊寒意)라 하니 곧 부주풍(不周風)이요, 북풍을 후명(後鳴)이라 하니 곧 광막풍

(廣漠風)이라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시(詩)짓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類選」券一上 天地篇 上 天文門, 민족문화추진회, 1978, 203)

(2) 이슬과 서리, 우박

성호는 비와 바람 외에도 일상의 기후와 날씨를 바라보는 일에 매우 세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관련 학문들 특히 농학이나 농업지리학, 농업경제학에서는 무상일수(無霜日數)는 농작물의 생육기간(生育其間)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중요시한다. 이렇게 농경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서리에 대한 관찰과 그와 유사한 이슬과의 차이점 등을 밝히며 기후 요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결국 이들이 우리 일상의 농업 경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그러했던 것 같다.

성호는 비, 바람, 이슬, 서리, 천둥과 번개 등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박에 대해서는 왜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 크기가 경우에 따라서 왜 큰 차이가 나는지 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의 크기가 다양한 것은 반드시 물이 있은 뒤에 한데 뭉쳐서 된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그 성인을 파악하되, 명쾌한 설명을 시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칠십 이 절후(七十二 節候)

성호는 역서(曆書)에 나오는 72 절후(節候)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72 절후는[12] 「급총주서」(汲冢周書) 시훈해(時訓解)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72 절후를 만들게 된 이유는 선현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계절과 절기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들을 적어 농경생활의 유익한 정보를 얻고 여러 정황에 미리 대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4절기와 72 절후에서 '기후'라는 말이 나왔고 1년을 24 절기(節氣)로 나누고 각 절기를 다시 3개의 후(候)로 나누어 계절을 구분한다. 성호는 72 절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 바람이 해동(解凍)하지 못하면 호령(號令)이 행해지지 않는다.
- 새 봄이 되어 만물이 생기를 얻지 못하면 갑주(甲胄; 갑옷과 투구)를 사장(私藏)한다.
- 초목이 싹트지 않으면 과일과 채소가 성숙하지 않는다.
- 번개를 시작하지 않으면 군주(君主)의 위세(威勢)가 떨치지 않는다.
- 반설(反舌)이 소리가 있으면 간사한 사람이 곁에 있다.[13]
- 큰 비가 때아니게 내리면 나라를 순행(巡行)하여도 은택(恩澤)이 없다.
- 현조(玄鳥)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이 흩어진다.[14]
- 우뢰가 소리를 거두지 않으면 제후(諸侯)가 음일(淫佚)한다.
- 홍안(鴻雁)이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 국화에 황화(黃華; 노란 꽃)가 없으면 땅에 심어 가꾸지 못한다.
- 무지개가 사라지지 않으면 여자가 한 남편에게 전심하지 않는다. (민족문화추진회, 1978, 283)

성호는 72 절후가 만들어 진 것이 오랜 세월에 걸친 민간 풍속과도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민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민속을 보는 시각으로서, "원래 민속(民俗)이란 순후하기도 하고 경박하기도 한 것이지만, 물성(物性)과 인사(人事)는 부험(符驗)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15]

이상에서 지형과 기후요소 및 절후에 관한 내용을 살폈다. 오늘날에도 우리생활과 밀접한 산지와 하천지형, 시멘트 공업이나 관광자원과 밀접한 카르스트지형, 청정수 식수로서의 지하수 개발 등은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내용들이다. 3대 기후요소인 기온, 바람, 강수 역시 우리 생활과 대단히 밀접하다. 매일 매일의 일기예보는 바로 이들의 변화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인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 외에 이슬, 서리, 우박 등에 대해서도 성호의 관심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자연지리적 현상에 대한 성호의 실용적 학문관심을 입증해 준다.

4. 입지(立地), 수리(水利), 성비(性比)에 대해

성호는 장소의 입지와 수리(水利) 및 치수(治水)에 대해, 그리고 인구의 성비(性比) 문제와 관련하여 첩(婕) 제도 및 서얼제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외침에 대

비할 뚜렷한 지리적 방어 입지에 관심이 많았다. 그와 관련하여 수도(首都)가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漢陽)의 입지, 피난처 수도로서의 강화(江華)와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대한 입지, 전략적 장소로서의 훌륭한 춘천의 입지 등 여러 지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입지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였다.

1) 입지(立地)의 선정

장소에 대한 지리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16] 한 시대의 어느 장소에 인정되는 중요성은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당대에 '요충지대'로서 비중이 있던 어떤 지역이 미래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 나라의 수도(首都)는 국가 방위 전략상 그 위치를 잘 잡아야 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조건 중에 이민족(異民族)과 가까운 곳에 두어, 그들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외적 방어에 유리한 입지를 중시하는 지리적 식견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명(明)이후 중국의 수도인 연(燕; 오늘 날의 북경)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험준한 산해관(山海關)이 위치함으로써 외적 방어의 요로라는 장점과 교통의 불편함에 따르는 단점의 양면을 지닌 지형적 요인을 들어 입지상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당시 상황에서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하는 방어상의 입지에 치중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한 국가의 수도는 글로벌시대의 국가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방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물산의 흐름과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여 국가정치, 경제, 문화발전의 거점 역할 등 종합적 관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성호는 자초상인(自初上人) 무학(無學)대사가 조선의 수도(首都)를 정할 때에 충청도 계룡산의 신도(新都)와 지금의 서울(한양)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 비교한 후 한양을 택하게 된 것을 탁월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이의 타당함을 논증하는 성호의 안목은 풍수 및 지리의 식견을 함께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서 첫째, 무학은 신도(新都)에 대해 조운이 불편한 점만을 들었지만, 성호는 신도(新都)의 판국이 좁고 역량이 모자라며 호남의 산수가 옹호해 주지 못한 점 등 불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상대적으로 한양(漢陽)은 범위가 크고 장엄하며, 풍수적으로도 훌륭하므로 수도입지로서 선택될 만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한양(漢陽)은 성곽을 쌓아 외적을 방어하기에는 규모의 경제상 지나치게 크고 트여있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17] 몽고의 침입 시에 왕실의 피난지였던 강화(江華)는 당시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왕실이 머물기에는 작은 규모이므로 훌륭한 입지는 아니었으며,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높은 산꼭대기 입지이므로 교통상의 흐름에 한계를 지니고 물자 수송에 불리하며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도 양호한 입지는 못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성호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입지, 물자의 수송에 편리한 교통입지, 외적의 방어에 유리한 입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황과 경우에 맞는 입지를 택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입지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너무 크거나 작아서도 안 되며, 또한 너무 높아서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의 요점으로 보아 성호가 말하는 바람직한 입지는 '규모의 경제를 살린 방어에 유리한 입지'이다.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 들을만한 원리가 들어있다.

이러한 입지 인식과 관련하여서, 외적 방어를 위한 도성(都城)을 쌓고자 할 때, 크게 짓는 것이 무익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도성의 담장이 길수록 취약한 부분이 들어나 침투 허점을 노출시키기 쉬우므로 성은 작고 탄탄하게 철옹성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 성이나 개성의 성이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적 침입 시에 한번도 제자리에서 지켜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성호는 '박천집(博川集)'[18]의 내용을 들어 춘천이 관중(關中)의 장안(長安)으로 비유할 만큼 지형조건이 방어에 유리한 최고의 요충지라고 추천하였다. 동으로는 산맥이 둘러서 있고, 북으로는 금화(金化), 남으로는 홍천(洪川), 서로는 가평(加平)이 길목이 되며, 분지형 골짜기와 산세를 이용해 만반의 태세로 방어하면 안전하기가 철옹성 같은

이를 데 없는 훌륭한 전략적 입지의 장소로 보고 있다.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과거에 중시했던 도시의 기능으로는 행정과 방어기능이다. 성호의 관점 역시 군사 및 행정의 중심지 역할 기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호는 춘천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기능상의 결절(結節)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19] 그의 통찰력에 의거하여 본다면, 오늘날 강원도의 도청소재지인 동시에 호반의 도시이며 문화의 도시로서 성장은 하였지만 환경관리 차원에서 규제가 많은 탓에 그다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수리(水利)와 치수(治水)

성호는 수리(水利)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도 밝혀 설명하였다.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관심은, 대체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여, 일상사의 개선에 두어지고 있었으므로 성호의 수리치용(水利治用)에 관한 관심과 서술은 의당히 짚고 넘어갈 만한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 빗물, 샘물, 개천물 등 주위에 늘 물이 있으나 이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하거나 흘려버리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속히, 서양 사회에서 발명되어 일찍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서, 물을 퍼 올리는 장치인 '용미거(龍尾車)'를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도구의 편리한 장치와 유용성을 하루빨리 배워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호 이후의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보인다.[20]

성호는 수리(水利)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김제의 벽골제를 들었다. 벽골제와 같은 인공 저수지 축조 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그 벽골제가 없어지게 된 배경설명과, 나라에서 조차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사적(私的)인 이유로 저수지를 망가뜨려 폐기하게 된 경위 등을 밝히면서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백성들에게 크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역설하는 실사구시의 실학적 사고가 깊게 베어있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3) 첩(婕)과 서얼제도, 성비(性比)

한편, 성호는 첩과 서얼제도를 인구의 성비(性比)와도 관련하여 서술하였는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얘기하고 있음은 특이할 만하다. 고려 충렬 왕 당시의 상소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여성이 많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상소 내용으로 보아 관리들이 이를 매우 걱정하였으며 국가의 정책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국인들에게는 엄격한 일부일처제를, 외국인에게는 일부일처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외국인들에게는 제한 없이 아내를 얻게 했으므로 외국인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걱정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두면 북쪽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 둘씩 떠나갈 일이 염려되니 그 대비책으로서 첩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뜻밖의 내용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매우 터무니없는 대응일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제안하는 의도의 저변에 불균형적인 성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정책적 뜻이 숨어있다. 한편 서자들에게도 적자(嫡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성호는 조선시대에 도서(島嶼) 및 해안지방에 여성인구가 많았던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옛날부터 해안 도서지방의 경우, 바다로 고기잡이 나간 남정네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21] 결과적으로 여성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도서와 해안지방에 여성인구가 많다는 지리적 경향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입지(立地), 수리(水利)와 치수(治水), 첩 제도를 통한 인구 성비(性比)의 조절, 도서 및 해안지방에 여성인구가 많아진 이유 등의 설명은 대단히 지리적 성격을 지닌 서술이다. 외적 방어의 입지론 전개는 성호의 영토방위 철학론을 경청하는 것과도 같이 느껴진다. 벽골제를 예로 들어 설명한 수리와 치수의 중요성 설명은 성호의 애민사상이 깃든 수자원 관리 정신을 엿보게 하며, 첩 제도를 들어 남녀 성비의 인구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독특한 발상임을 문득 깨닫게 한

다. 도서 해안지방에 여성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이미 성호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지리적 보편 경향이었음을 알게 해 준 서술이다.

5. 풍수와 풍속

성호(星湖)는 당시 우리나라 각 처에 남아있는 풍속과 습관 등 색다른 문화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지방의 유풍만이 아니라 문화전파의 주체자로서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영남 지방의 풍속, 경주 시가지의 구획, 개성의 삿갓과 타래머리, 제주도 사람들의 거친 기질과 사투리 등에 대한 원인을 사람들의 이주에 의한 문화전파 개념의 예로서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다.[22]

성호는 풍수상으로 영남 지역은 생기(生氣)가 용(山脈)을 타고 내려와 결실을 맺는 양호한 곳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기(生氣) 즉 지기(地氣)에 힘입어 퇴계, 남명 등 대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유림문화가 꽃피웠고, 여기서 배출되는 인물들이 미래의 국가 환난시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23]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은 성호의 지나친 풍수사상의 맹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24] 영남지역 출신의 거유(巨儒)들이 풍수상의 유리한 지기(地氣)덕분으로 보는 것은 인간을 환경결정론적인 결과의 존재로만 파악하는 것이며, 후천적 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성호의 말대로라면 산 줄기의 이어짐이 없어서 풍수상의 생기(生氣)가 용(龍; 산맥)을 타고 흐르지 못하는 여타 지역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전혀 나올 수 없다는 논리가 되며, 이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성호의 의견에 따르자면, 김해(金海), 동래(東萊), 안동(安東), 예안(禮安) 등지는 백두산의 정기가 태백산을 타고 내려와 이른 곳이므로 명현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인재의 고장이 되는 셈이다.

성호는 영남 지역 선비들과 농민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대단히 상세히 많이 알고 있었으며, 영남 지역의 풍속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영남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당시 선비들이나 타 지역 농민들이 본 받을 만한 귀감으로 소개하고 있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기는 하지만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한양(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의 풍속이 안일과 사치에 흐르고 문벌을 위주로 하는 나쁜 풍속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성호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의 기록을 바탕으로 김해지방의 순후한 풍속을 논하고, 정부의 풍속에 순응하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해(金海) 지방을 포함하는 영남 지역을 중국 주대(周代)에 가장 예의를 숭상했던 노(魯)나라 땅에 비유하여 민간 풍속의 표본으로 삼을 것을 권할 정도였다.

경사(경기도)에 가까운 지방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말과 행동이 이해(利害) 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혹평하는 반면에, 오직 영남은 옳고 그름이 있어서 일에 정하여진 한계가 있고, 사람에게 정하여진 평가 기준이 있어서 아직도 "한 번 변하면 도(道)에 이르는 노(魯)나라 땅"임을 잃지 않고 있는 곳과 같다고 평할 정도이다.

이상의 서술에서 특정 지역이 지니는 풍속에 대한 성호의 서술은 그곳의 유풍만이 아니라 이주해 온 사람들의 문화전파 영향도 함께한다는 것이므로 문화전달자로서의 사람들의 이동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리적 개념을 담고 있다. 영남지방에 백두산의 정기가 용(태백산)을 타고 내려온 생기를 품고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으며 아름답고 예절 있는 풍속을 만들었다는 진술은 풍수사상에 입각한 서술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풍수사상에 사로잡힌 사고(思考)라고 볼 수 있다. 영남지방과 경기지방에 대한 풍속의 혹독한 비교설명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6. 방안(方眼) 지도제작과 지명(地名) 유래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축소 확대가 자유로운 방안작법(方眼作法)은 오늘날의 지도 학습에서도 그 중요성이 변함이 없는 기본원리이다. 트래싱 페이퍼를 이용한 지도의 복사(複寫) 방법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 소요되는 재료만 다를 뿐 원리에 있어서는 성호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나 오늘날의 그 방법이 차이가 없다. 첫째, 콩기름이나 양초를 녹여 먹인 종이 즉, 오늘날의 트래싱 페이퍼를 원도에 대고 그리는 기법에 대한 설명이 그렇고, 둘째, 방안선 기법으로서 경도와 위도를 상정

하듯 가로 세로 방안을 만들어 원도를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시켜 그리는 기법의 설명이 그러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국호인 '조선'과 더불어 선택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화령(和寧)'이란 국호는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부터 근거하여 만들어졌던 것임을 설명하였다.

> "모든 나라의 칭호는 흔히 그 근본을 따랐으니, 잊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국가를 건설하고 조선과 화령(和寧) 두 가지 칭호를 가지고 중국에 요청하였는데 현재의 칭호 즉, 조선으로 정해진 것은 명나라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화령이란 무엇인가? 국경 밖에도 이 명칭이 있었으나 이것은 요청할 바가 아니었다. 고려 식화지(食貨志)에 보면 신 우(辛禑) 9년에 우리 태조가 국경을 안정케 하는 건의를 올렸는데, '동북 일대의 주·군(州郡)은 땅이 좁고 메마르지만 화령만은 도내(道內)에서 땅이 넓고 비옥하다.'하였고, 공양왕(恭讓王) 3년에 화령판관(和寧判官)이란 말이 있었으며, 또 동쪽 지역에 화주(和州)가 있었는데 공민왕 18년에 승격시켜 화령부로 만들었으니, 화령부는 곧 지금의 영흥(永興) 땅으로 선원전(璿源殿)이 있다. 이곳은 태조가 일어난 곳으로 이른바 적전(赤田)이란 것인즉, 화령의 칭호는 반드시 이곳을 가리킨 곳이니, 고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문화추진회, 1978, 128)

장소와 지역의 이름은 전통적인 지명의 기원을 살펴 근본을 따라 뜻을 이어가거나 만들어지는 것의 의미와 그 보전 중요성을 알게 해 주는 내용이다. 한편, 금강산을 돌아보고 그 명칭의 유래와 일만 이천 봉 봉우리 수를 일반인들이 그대로 믿는 것에 대한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금강산의 본래 이름은 '풍악(楓嶽)'이었으며 불경의 말을 따서 '금강'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산의 이름과 봉우리 수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하였다. 이는 성호의 우리나라 산천에 대한 정확한 이름 유래를 알고, 옳게 부르며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상의 위치 설정의 기준은 '경위선 망의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제작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경위선망의 축소판인 방안(方眼)을 바탕으로 지도를 그려 넣음으로써 지도를 크거나 작게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지도 작법이다. 놀랍게도 성호는 방안 지도 제작법 즉, 정간작법(井間作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조선(朝鮮)'과 '화령(和寧)'의 대안이 있었다는 것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국호는 전통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장소 지명의 유래를 가진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소에 대한 지명은 정확한 정보와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명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진술이다.

7. 북방 강역(疆域)에 대해

성호는 우리나라 북방 강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관련 내용에 대한 고증을 통해 여진, 두만강 일대의 쟁계(爭界), 폐사군(廢四郡) 강역, 안시성 등 과거 우리 강역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25]

우선, 우리의 북방을 괴롭혔던 여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근원을 밝히려 하였다. 여진은 말갈(靺鞨)의 후속 변방국으로 보고, 여진은 다시 동여진, 서여진, 북여진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진족, 특히 서여진은 우리민족과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은 민족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동여진의 종족으로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한 오랑캐, 오디개, 니마거 등의 종족을 밝혀 분류한 점 등은 돋보인다.

성호는 두만강 일대의 국경선 지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두만 강과 토문 강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오늘날 까지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26]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성호는 북방의 국경선 설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고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과거의 넓은 영토를 포기하고 내부로 좁혀 들어 설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지적하였다.

> "북방의 국경은 두만강으로 경계선을 삼고 있다. 그런데 고려 시대에 윤관(尹瓘)의 비(碑)가 선춘령(先春嶺)에 있고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백리 밖에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지난 번에 국경선을 정할 때 두만강의 원류(源流)만을 찾았는지 알 수 없다. 두만강이란 것은 바다로 들어

가는 위치를 말한 것이니, 토문(土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 어음이 비슷해서 와전된 것이다. 백두산의 물이 이리로 모여드는데, 만일 토문에서 여러 물의 근원을 따라 올라간다면 지금 강 북쪽에 있는 지역은 모두 우리의 소유이며 선춘령도 그 안에 포함된다." (민족문화추진회, 1978, 129)

한편, 성호는 윤 관(尹瓘)이 육성(六城)을 설치하고 우리의 강역을 넓혀 비(碑)를 세운 것과 후에 김종서(金宗瑞)가 두만강을 경계로 후퇴하여 국경 경계를 삼은 것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나중 조선과 중국 사이의 경계를 정할 때에 올바른 경계선를 되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소 손녕(蘇遜寧)과 담판할 때의 서희(徐熙)처럼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당당히 맞서 우리의 강역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폐사군(廢四郡)이 있던 지역은 오늘날 북한의 압록강 주변 양강도와 자강도 및 중국의 땅에 걸쳐 분포했던 지역이다.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지척에 둔 변방 지역이며 심산유곡이 많은 대단히 깊은 마을들이다. 이들 지역의 명칭과 폐군 처리된 경위, 행정소속의 변화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27] 원래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었으므로 야인들의 약탈과 살인 등을 일삼던 이 지역의 형편이 안정화 되면 되찾아서 적절하게 이용하여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서 이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성호의 우리나라 강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시성 싸움'으로 유명한 안시성이 오늘날 중국의 봉황성을 일컫는다는 다음의 인용문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한다.

"…(전략)… 또 고찰해 보면 안시성(安市城)은 곧 지금의 봉황성(鳳凰城)이다. 봉황을 우리나라에서 '아시새(阿市鳥)'라 한다. 이 아시와 '안시(安市)'가 음이 비슷하므로 그렇게 명칭이 붙여진 것이다. 지금 중화군(中和郡)에 안시성이 있는데 명나라의 사신 진 가유(陳嘉猷)가 시를 지어 이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전한 것을 인습하여 지은 것인데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우스운 노릇이다. 뒷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 내려오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많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132)

이와 같은 설명은 이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28] 연암과 마찬가지로 성호 역시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밝혀 바로잡지 않고 인습적으로 그대로 방치하여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다. 안시성이 곧 봉황성이라면 옛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봉황성이 있는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성호는 우리나라의 강역, 특히 북방의 강역 중 옛 우리 영토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학자였음을 알게 해준다. 아울러 성호가 걱정한 당시 또는 후대의 사람들이 북방영토 문제를 분명히 짚어놓지 않은 불씨는 결국 최근 들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문제, 독도를 일본령 죽도로 표기하여 한일간 영토분쟁화 되고 있는 일,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주지방(중국 동북삼성지방)을 둘러싼 동북공정 문제 등으로 확대된 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이웃한 일본 및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이미 성호가 예견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제주도와 울릉도, 근린국 일본

제주도와 울릉도, 그리고 이웃 국가 일본에 대한 그의 묘사는 지리학의 전통 기술 방법으로서의 지지적(地誌的) 기술 패턴을 보여준다.

성호는 제주도가 육지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그 규모와 옛 이름, 그리고 한라산 꼭대기의 화구호(火口湖), 한라산의 높이에 대한 간접적인 서술과 산세의 험준함, 주요 마을인 제주(濟州)와 대정(大靜) 그리고 정의(旌義) 등의 위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지리학자가 아닌 성호의 묘사로서, 당시 제주도를 소개하기 위한 훌륭한 지지(地誌)적 서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의 북서쪽에 있는 작은 섬 비양도(飛颺島)에 대해

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매우 작은 섬 비양도를 어떻게 성호가 알고 서술했는가에 대해 궁금증까지도 갖게 된다. 이렇듯 작은 지역단위에 대해서조차 관심을 기울인 것은 성호의 지리적 호기심이 대단함을 말해준다. 비양도의 또 다른 이름(異名)과 위치 및 크기, 이 섬이 생성되기까지의 과정, 지질구조에 대한 설명에서 현무암괴의 모양을 보고 '수포석(水泡石)처럼' 이라고 표현한 점 등 그 표현이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한마디로 훌륭한 지지(地誌)적 서술이며 묘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호는 울릉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의 옛 이름과 육지로부터의 거리, 그 동안의 울릉도 관리 정책 등에 대해서도 훌륭한 역사·지리적 고증을 하며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왜구들의 분탕질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으며,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정을 소상히 밝혀 그 옳고 그름을 가려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떻게 변화해 왔던 간에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들은 의당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음은 영토의 영유권을 확실히 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29] 다음은 울릉도에 대한 성호의 인용문이다.

> 울릉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데, 우산국(于山國)이라고도 한다. 육지에서의 거리가 7백 리 내지 8백 리쯤 되며, 강릉삼척 등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세 봉우리가 가물거린다. …(중략)… 조선시대에 이르러 죄인들이 도망해 와서 사는 자가 많으므로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낱낱이 수색하여 모두 잡아온 일도 있었다.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울릉도는 임진왜란 후에 왜적의 분탕(焚蕩)과 노략질을 겪어 다시 인적이 없었는데, 근자에 들으니 왜적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했다 하며, 혹자의 말에 의죽도는 곧 울릉도라 한다."하였다. 왜인들이 어부 안용복(安龍福)이 월경(越境)한 일로인하여 와서 쟁론할 때 「芝峰類說」과 예조(禮曹)의 회답 가운데 '귀계(貴界)'니, '죽도(竹島)'니 하는 말이 있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다. …(중략)… 우릉도(羽陵島)라고 하든, 의죽도(礒竹島)라고 하든, 어느 칭호를 막론하고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며, 그 부근의 섬도 또한 울릉도의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하략)." (민족문화추진회, 1978, 287-288).

나아가 성호는 이웃나라 일본이 바다 가운데의 도서국이므로 외부 세계로부터의 일본침략이 쉽지 않았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들어 살폈다. 중국 원(元)나라 대군의 일본침략 시도가 큰 바닷바람을 만나 절멸의 위기까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충렬 왕 당시 김방경(金方慶) 등이 몽고병·만병(蠻兵)과 합세하여 일기도((日岐島)를 공략하려다 실패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 종무(李從茂)를 보내 대마도를 토벌하여 공적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도했던 일기도(日岐島)나 대마도 정벌은 모두 일본의 바깥 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변경을 넘어 본토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없었다. 성호는 이와 같이 일본이 바다 가운데의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제법 넓어 대체로 살기 좋은 낙토(樂土)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사병(私兵) 군대를 끼고 서로 다투고 있으므로 마침내는 통일되는 시기에 가서야 비로소 걱정이 없어질 것으로 정세를 판단하는 등, 당시 일본 국내의 내부 사정이 조용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 화산폭발과 지진이 빈발하여 피해가 컸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지축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땅이 꺼져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사실과 땅 속 깊은 곳에 텅 빈 공동이 생겼으며, 화산이 폭발한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등 참담한 정황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상황을 이보다 더 이상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치밀한 묘사와 기록으로 보면 당시 일본의 지질과 지각변동에 대한 사실을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한 것처럼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비양도,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지지(地誌)적 서술은 그 묘사의 치밀함이 매우 뛰어나다. 제주도와 일본은 마치 여행을 직접 한 후 후기를 쓰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느껴진다. 울릉도에 대한 서술에서는 왜구의 침입에 대한 영토 방위의 분명한 정신을 공감하게 하고, 안용복에 대

한 설명은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우기까지 한다.

9.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호의 대표적 저서인 '성호사설'의 천지문(天地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천지문에 나타난 지리관련 주제들과 내용을 발췌하고, 오늘날의 지리내용 분류체계에 준해 내용별로 묶어 정리 서술하며 해석하였다. 지리관련 주제와 내용들에 대한 논의와 해석과정을 통해 성호가 지녔던 지리적 사고(思考)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성호사설'에 나타난 지리관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서론부의 연구의 내용에서 제시한 순서에 준해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호사설의 천지문을 통해 본 성호의 지리적 관심은 다양한 주제에 걸친다. 산맥, 카르스트 지형, 지하수의 분출, 기후 요소, 절후(節候), 입지(立地), 수리(水利)와 치수(治水), 인구 성비(性比), 풍수사상과 풍속, 지도와 지명, 북방 강역, 제주와 울릉 도서지방, 이웃나라 일본 등 다양한 지리적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성호의 지리관련 내용에 대한 성찰과 깊이는 주제별로 차이가 인정된다. 카르스트 지형으로서의 석회동굴에 대한 지리적 묘사는 그 치밀함에서 전공자를 무색하게 할 만큼 사실적이고, 지하수의 분출인 샘과 우물에 대한 원리 설명은 매우 과학적이다. 기후요소인 비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이지만 전선성 강우의 깊은 원리를 꿰고 있으며, 여덟 방향의 바람에 대한 고유명칭 설명과 72절후의 설명은 매우 토속적이고 지리적이다. 입지조건의 으뜸을 방어기능에 두고 전개하는 성호의 입지에 관한 철학은, 춘천의 전략적 입지설명과 규모의 경제 개념을 품은 도성(都城)의 입지 설명에서 보다 확연해진다. 벽골제 저수지의 중요성과 용미거(龍尾車) 수차 도구의 활용 권장은 수리치수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에 충분하며 방안(方眼)을 이용한 지도의 제작원리 및 콩기름 종이를 이용한 지도의 복사 설명, 그리고 지명표기의 정확성에 대한 필요성 강조는 지리학 전공자의 사고(思考)에 가깝다. 제주도와 울릉도 및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서술은 훌륭한 지지적 서술묘사 그 자체이다.

셋째, 성호사설 천지문을 통해 이상에서 언급한 지리관련 주제들이 성호의 관심을 대변하며 다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후요소와 절후, 입지 및 수리와 치수, 지도와 지명 등에 대한 주제와 설명은 당시의 실학지식에 대한 강한 수요를 말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 대체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식과 외적방어와 행정에 필요한 전략행정지식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들이다. 산맥을 용(龍)으로 보고, 백두산에서 태백산맥을 거쳐 생기(生氣)를 몰고 오는 끝자락을 영남 지역으로 보고, 이곳에 걸출한 인물이 배출되고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꽃핀 이유를 풍수지리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에는 다소 지나치고 과장된 면이 있으며, 풍수사상이 만연했던 시대적 정신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른다.

첩(婕) 제도를 통한 인구 성비(性比)의 조절 대안책 제시는 그 발상자체가 괴상하고 기발한 면이 있으며 시대상의 사회적 문제를 인구 정책적 대안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끝으로 북방 강역에 대한 자세한 서술과 울릉도에 대한 설명은 성호의 지극한 국토애와 애국심를 보여주는 동시에, 제주도와 비양도 및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세밀한 지지적 묘사는 당시 서민들의 미지세계에 대한 지리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방편으로도 추정해 본다.

넷째, 성호사설 천지문에 보이는 지리관련 주제의 범주와 내용의 깊이는 오늘날의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다. 산지 지형과 하천지형이 모두 중요하게 다룰만한 것이지만, 천지문에서는 하천지형에 대해 별반 내용이 없다. 산지 지형에 관해서도 산맥을 생기가 흐르는 용(龍)으로 표현하여 풍수적 측면에서만 언급했을 뿐이다.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벽골제를 들었으나 특별히 바다 및 호수(자연호, 인공호)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입지(立地) 및 지도와 지명, 울릉도와 제주도, 일본에 대한 주제(topics) 설정은 대단히 지리적이다. 설명에 있어서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요한 지리적 원리 또는 개념을 정확하게 짚음으로써 예리함과 함께 내용의 무게를 느끼게 해 준다. 이밖에도 '지리적 가치는 변할 수 있다', '풍속과 풍습은 사람의 이주에 따라 전파되기도 한다', '도서 및 해안지방에는 여성인구(노동력)이 많다'는 등의 간단한 논지들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오늘날의 지리개념들

과 거의 통할 정도로 와 닿는다. 풍수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의 합리성으로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호사설 천지문에 나타난 지리관, 즉 성호의 지리적 사고(思考)는 무엇인가? 성호는 오늘날의 일반인 기준으로 본다면 지리적 사고(思考)가 깊고 매우 박식한 사람이다. 구사하는 지리용어는 그렇다치더라도 석회동굴에 대한 지리적 묘사, 샘과 우물에 대한 과학적 원리 설명,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 통찰과 쉬운 설명, 방어 입지의 논리 분명한 설명과 도성(都城)의 규모경제에 입각한 입지설명, 용미거(龍尾車) 수차 도구의 활용과 저수지 축조 등 수리치수의 중요성 설명, 방안(方眼) 지도 제작원리 및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지명의 중요성 등의 언급은 전공자의 사고(思考)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다. 지역에 대한 지지적 묘사는 때로 정치한 수준에 이르며, 보편적 지리개념에 가까운 논리의 일반화 수준의 언급은 지리적 사고(思考)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풍수사상과 지리에 몰두하여 지역 풍속과 인물을 설명함은 오늘날의 합리적 시각에서 볼 때 옥에 티다. 이러한 점은 당시 풍수사상이 만연한 시대정신의 소산 일 수도 있다. 천지문의 지리관련 주제들은 결국 기후요소, 수리시설 등 실생활의 생활지식과 입지, 지도, 북방 강역에 대한 지식 등 외적방어와 행정에 필요한 전략행정지식으로 묶을 수 있다. 북방 강역과 울릉도의 설명은 국토애와 애국심을 반영한다. 제주도와 비양도, 이웃나라 일본 등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당시 서민들의 미지세계에 대한 지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변의 글로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성호사설 천지문에 나타난 지리적 사고(思考)는 일반인 수준 이상의 심오한 부분이 있다. 물론 전문적 지리 저술이 아닌 만큼, 주제나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이 구조적이지 못하거나 짜임새에서 허술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요소, 수리(水利), 지도(地圖)작법 등의 설명, 정확한 지명(地名) 명명의 필요성 주장, 제주도와 울릉도 및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치밀하고 사실적인 지지적 기술 등은 지리관련 주제(topics)들의 훌륭한 포착이다. 풍수사상에 입각한 풍속설명과 첩(婕) 제도를 통한 인구 성비 조절 대안은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으나 당시의 시대정신과 사회상의 소산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註

1) '성호사설(星湖僿說)'은 다시 성호의 고제(高弟)인 순암 안정복(安鼎福)에 의해 새로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으로 간추려졌다. '사설'은 '-문(門)'으로 분류하였으며 칙수(제목 분류) 총계 3,007개이고, '사설유선'은 '-편(篇)'으로 분류하면서 칙수 1,396개로 추려졌다.

2) 이들 전공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동양학과 한국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의 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들 수 있다.

3) 민족문화추진회(1978)에서 번역한 국역성호사설의 천지문(天地門)을 연구의 대본으로 하였다.

4) 성호(星湖)의 증조부 상의(尙毅)는 의정부 좌찬성, 할아버지 지안(志安)은 사헌부 지평을 지냈고, 아버지 하진(夏鎭)은 사헌부 대사헌에서 사간원 대사간으로 환임(還任)되었다가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진주목사로 좌천,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민족문화대백과, 이익(李瀷))

5) 첨성리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 하진이 1678년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다녀올 때 청제(靑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때문에 가능하였다.

6) 경제실용의 학문에 이명휴, 성리학 등에 이병휴, 역상과 문장에 이용휴, 성리·예학에 이삼환, 유학 전부문에 박학이었던 이가환, 인문지리에 이중환 등이 성호의 학풍을 계승한 일문이고, 역사의 안정복(安鼎福)을 위시한 윤동규(尹東奎), 신후담(愼後聃), 권철신(權哲身) 등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었으며, 정약용과 박지원, 박제가 등은 그의 여풍을 계승한 두드러진 학자들이었다.

7) 그러나 그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 예수부활설과 같은 것은 황당한 설로 간주하였다.

8) 천지문 2백 23항목 중에는 천문(天文)과 지리(地理) 내용이 주이다. 천문학 분야의 내용에는 천문지, 율력지, 칠성서 등과 중국의 고전 등에 비추어 일월(日月), 성신(星辰), 풍우(風雨), 노상(露霜), 뇌진(雷震), 조석(潮汐) 등에 관해 논하였다. 역법(曆法)과 태양의 궤도, 세차,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일식, 일구(日咎)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별자리의 변화는 병란(兵亂)과 지변(地變), 질역(疾疫)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천재지변에는 시운(時運)이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9) 수(洙)와 사(泗)는 모두 노(魯) 나라의 물 이름. 수사는 곧 공자와 그 제자들이 출생한 곳이라는 뜻.

10) 강우의 원인으로 기후학 또는 지리학에서 전선성(前線性) 강우, 대류성(對流性) 강우, 지형성(地形性) 강우 등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11) 토박이말 쓰임사전을 찾아보면, 방향에 따라 북동풍은 된새바람(또는 높새), 서풍은 갈바람(또는 하늬바람), 남서풍은 갈마바람, 남풍은 마파람 또는 앞바람,

북서풍은 높하늬바람, 북풍은 높바람 또는 된바람으로 부르기도 한다.(이근술 · 최기호 엮음, 2001, 토박이말 쓰임사전, 동광출판사, p.895)

12) 칠십이후(七十二侯) ; 태음력(太陰曆)을 가지고 자연현상에 입각하여 1년을 72절후로 구분한 것으로 「예기」 월령(月令)에 보면 5일을 1후(侯), 3후를 1기(氣), 6후를 1월(月)로 하여 1년을 24기 72후로 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283 각주 재인용).

13) 반설(反舌) ; 「예기」 월령(月令)에 나오는 말로 백설조(百舌鳥)를 의미함.

14) 이 말의 원문(原文) 실가(室家)는 아내의 뜻도 되어, 아내와 흩어지는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283 註 재인용).

15) 물성(物性)이란 물건의 성품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고, 부험(符驗)은 서로 맞아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문맥은, 즉 성품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뜻함.

16) …(전략)… 대체로 지리적인 가치는 변할 수 있으며 시대는 예와 지금이 다르다. 사람들은 다시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누경(婁敬)의 말 한 마디를 믿고 이를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145-146).

17)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의 수준으로 보아 성의 축조기술이 못 미쳐 이러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양에 성곽을 짓되, 같은 기술수준이지만 내성과 외성을 2중, 3중으로 축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한양이 넓어 튼튼한 도성을 축조하는 것이 불리하다면 한양 주변의 여러 잔구성 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북수(複數)의 작은 성들을 축조하는 방안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18) 박천집(博川集) ; 이옥(李沃)의 문집. 저자는 연안 이씨(延安李氏)로 문과에 급제, 이조 참의와 경기 관찰사를 지냈다. 박천(博川)은 박천(搏泉)으로도 쓴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136 각주 재인용).

19) 과거에 교통로가 덜 중요시 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상대적 입지에 절대적인 교통기능의 중요성은 이후 현대 지리학에서 더욱 강조된 것이라고 본다면, 외적 방어에 유리한 군사상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고 그 위에 행정적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도성(都城)을 축조해야 한다는 뜻의 성호의 사고(思考)를 단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 연암 박지원은 연행록인 그의 '열하일기'를 통해 청조로부터 '용미거(龍尾車)'의 편리한 방식을 배워 우리나라 농촌의 농사일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나랏말씀7 열하일기', 2002, (솔), 240).

21) 이런 이유 외에도 바닷가의 어촌 살림살이는 남정네들보다는 여성들의 노동력을 더욱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중앙보다는 해안 도서 벽지는 문명적으로 후진지역이었으며, 덜 문명화된 미개지역일수록 여성노동력이 많아지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기도 하다.

22) 그리고 당시 개성의 성균관 향교(鄕校)지기 곡(哭)소리까지도 변하지 않은 예와, 발해(渤海)와 글안(契丹)이 망했을 때 그 유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므로 서쪽 사람들이 건장하고 힘쓰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보아 옛날 풍속이 남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민족문화추진회, 1978, 127).

23) 신라 말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풍수사상에 성호 역시 몰두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4) 지나치게 풍수 지리적 사상 또는 사고(思考)에 함몰하는 것은 곧, 환경결정론(環境決定論)적인 사고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인정하는 셈이며, 이는 근 · 현대에 이를수록 우위를 점하고 비중이 커지는 환경가능론(環境可能論)적인 사고에 정면 대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성호는 풍수사상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다른 맥락을 보지 못하는 단선적 자연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풍수사상에 매몰된 면모는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띈다. 즉, 김해(金海), 동래(東萊), 안동(安東), 예안(禮安) 등 영남 지역의 주요 마을에 관해 설명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25) 삼한, 한사군, 예맥, 옥저, 읍루(挹婁), 패수(浿水), 살수(薩水), 비류수, 울릉도, 안시성, 발해 황룡부, 철령위, 윤관비, 가도(椵島), 동삼성(東三城), 폐사군(廢四郡), 여진, 대마도 정벌 등의 소재와 문제점 등에 두루 관심을 기울였지만, 본 절에서는 북방 강역에 범위를 제한하여 다룬다.

26) 1712년 세워진 백두산정계비에서 당시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정한 '토문강(土門江)'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은 두만강과 같은 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토문강이 두만강과 분명히 구분되는 별도의 강이라고 기록한 중국 정부의 공식문서 '중 · 조 변계의정서(1964년 3월)'가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27) 「林下」 卷十三 文獻指掌篇三 · 廢四郡議 · 北廢郡故事. 「五洲」卷二十九 廢四郡本末辨證說(민족문화추진회, 1978, 220).

28) 열하일기에 보면,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이 곧 안시성이다."한다. 고구려시대 방언에 큰 새를 '안시'라 하니, 지금도 우리 시골말에 봉황을 '황새'라 하고 뱀을 '배암(백암)'이라 한 것으로 보아, "수당 때에 이 나라 말을 따라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라는 글이 들어있다.(「渡江錄」, 6월 28일, 나랏말씀7 열하일기, 솔; 61). (손용택, 2004, 10(3), 502).

29) 부속도서 가운데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독도에 관한 서술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의 작은 부속도서 비양도(飛颺島)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 성호가 울릉도의 한 · 일간 분쟁 문제에서 안용복(安龍福)을 거명하면서까지 독도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뜻밖이다.

文獻

권동희, 2005, 지리이야기, 한울

김남형, 1996, 성호(星湖)의 비평의식-『星湖僿說』의 시문문을 중심으로, 한문학연구의 현황과 방향모색(학술발표)

김현수, 2003, 다산 정약용의 經學과 經世觀; 다산 정약용의 국가례 고찰 -『經世遺表』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金容燮, 1975, 18·9世紀의 農業實情과 새로운 農業改革論, 韓國近代農業史硏究

김석형, 1990,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활동, 다산학보 11.

김영호, 1985, 여유당 전서의 텍스트검토,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김인열, 1986, 조선후기 향촌사회구조의 변동, 정다산과 그 시대, 민음사.

다산연구회 역주, 1985,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 비평사.

민족문화추진회, 1978, 국역성호사설(천지문).

민족문화추진회, 1978,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Ⅱ) 제12권, 강화도호부 편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다산시문집 Ⅳ

민족문화추진회, 1983, 국역다산시문집 Ⅴ

박성래, 1985, 『星湖僿說』의 서양과학,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박찬승,1986, 정약용의 井田制論 고찰-『經世遺表』<田制>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역사학회

박석무·정해렴 편역, 1996, 다산논설선집

박영한, 1977, 청담 이중환의 지리사상에 관한 연구, 낙산지리,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지리학과.

손용택, 2004, '열하일기'에 비친 연암 박지원의 지리관 일 고찰(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497-510.

愼鏞廈, 1983, 다산 정약용의 閭田制土地改革思想, 奎章閣 7

안병식, 1985, 목민심서考異, 정다산연구의 현황, 민음사.

양보경, 1983, 16-17세기 읍지의 편찬배경과 그 성격, 지리학, 27.

양보경, 1984, "조선시대 지리서 연구 서설,"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석천 이찬박사회갑기념논집, 교학사

윤사순, 1986, 다산의 생애와 사상, 철학, 25.

이세현, 1991, 『星湖僿說』에 나타난 이익의 문학론 연구, 백강서수생박사 고희기념특집호, 동방한문학회

이도원 엮음, 2004, 한국의 전통생태학,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이민수 역, 1995, 아방강역고, 범우사

이원순, 1991, 조선실학지식인의 한역서학지리서 이해,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이윤갑, 1991,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지배층의 동향, 한국학 논집 18, 계명대

이을호 역, 1975. 목민심서, 현암사

임덕순, 1987, 다산 정약용의 지리론 연구, 지리학논총, 14.

임덕순, 1991, "다산 정약용의 지리사상," 한국의 전통 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유인희, 1985, 『星湖僿說』의 철학사상-정주리학과의 비교연구,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장동희, 2002, 經世遺表를 통해 본 다산의 인사행정 개혁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鄭奭鍾, 1970, 다산 정약용의 경제사상-그의 田制改革案을 중심으로(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진단학회, 1985,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진단학보,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최박광, 1985, 『星湖僿說』의 시론-실학파 문학관의 일단, 제13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星湖僿說』의 종합적 검토

최성철, 1984, 조선후기 실학의 개혁사상, 한국학논집, 6.

최영준, 1992, "조선후기 지리학 발달의 배경과 연구전통," 문화역사지리, 4.

최창조, 1991, 한국 풍수사상의 이해를 위하여,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팽임, 1994, 『經世遺表』에 나타난 정다산의 실학사상,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한혜욱, 1986, 성호(星湖) 이익의 시관-『星湖僿說』의 시문문을 중심으로, 미간행

홍이섭, 1959,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연구』, 한국연구도서관

(접수 : 2006. 4. 20, 채택 : 2006. 5. 17)